

## ▶ 가족자원경영

리더를 길러낸 어머니 리더십의 사례연구<sup>4)</sup>

김 경 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숙명리더십개발원 조교수)

그 동안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의 향상이나 목표달성 등을 촉진시키는 개념으로서 상사와 부하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점차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 수평적 측면의 전방향 리더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 또한 가족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하나의 단위(unit)라는 측면에서 가정리더십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가정은 인간발달에 있어 건전한 성장과 미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이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로 사회로 이양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건강한 차세대 리더로 기르기 위한 교육의 첫걸음은 먼저 역할모델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가정의 CEO,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어머니 리더십의 전반적인 현주소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어머니 리더십의 학문적 연구 현황과 실천적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국내외 리더를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어머니의 양육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탐색하였다.

어머니 리더십의 사례분석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네 가지 리더십의 가치사슬인 자기확신, 창조적 혁신성, 커뮤니케이션, 임파워먼트에 근거하여 유형화하였다. 첫째, 비전달성을 위한 자기확신과 관련하여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 아인슈타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자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열정을 갖고 자신의 로드 맵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신뢰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어머니 리더십의 자질을 발휘하였다. 둘째, 창조적 혁신성과 관련하여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모 낸시 헵크스와 계모 사라 부시 존스턴, 맹자의 어머니 구맹격, 스피버그의 어머니 레아 등은 'Leader is Reader'라는 말처럼 자녀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생각과 지식의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지적능력 향상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정경화의 어머니 이원숙은 공감적 경청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비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며 잭 웰치의 어머니 그레이스 웰치는 아들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한 김진호의 어머니 유현경, 금나나의 어머니 이원홍 등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어머니의 양육방법 덕분에 자녀 스스로 파워를 키워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역량증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리더를 키운 어머니의 사례를 분석한 것과 같이 어머니의 리더십 역량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녀는 모-자녀 간의 세대간 갈등 없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주도적인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어머니 리더십은 21세기 가정관리자가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4)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